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적극 대응

부안 왕등도 해역 불법어구 강제 철거

전북도, 전남 조직 구성해 수산물 안전성·위생검사·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안전성 홍보키로

전북도, 유관기관 합동 수산자원 보호·어업질서 확립 위해

전북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는 총괄반,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 단속반, 해양오염 감시반 등 4개 반, 15명으로 전남 조직(TF팀)을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 전남 조직(TF팀)은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위생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소비 위축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근해 여획 수산물의 방사능

(요오드, 세슘) 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기 이전인 생산 단계 수산물의 검사 횟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회, 10건에서 올해 7회, 30건으로 검사 횟수를 늘렸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12회, 40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설과 추석 명절 성수기에 2회 합동으로 추진하던 수산물 원산지단속도 연간 10회 이상 상시 실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

원, 14개 시·군,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필요시 전남 조직(TF팀)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연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북태평양해류, 북적도해류, 쿠로시오해류를 타고 수년 뒤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 연안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남아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도는 '원전 오염수 방류 절대 용납 불가'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 도내 어업인과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규탄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뒤 수산물 소비심리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전남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또, 직권 감척 어업인들의 재진입과 불법조업으로 정책집행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야간 선박 항행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정신 고취 및 어업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불법어구에 대한 자발적 철거 행정절차를 작년 8월부터 밟아왔다.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어구 철거 이행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도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6개 생생마을,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아동학대 안돼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6개 생생마을과 한국식품연구원(헬스케어연구단)이 지역 먹거리 건강 가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생생마을은 ▲익산시 용머리고을, ▲정읍시 원정마을, ▲김제시 외갓집마을, ▲진안군 하가막마을, ▲임실군 강서마을, ▲고창군 화산마을이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막연하게 인식해온 지역 먹거리의 우수성을 한국식품연구원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을의 우수 식자재를 활용한 건강 치유 식단을 개발하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생생마을은 친환경 우수 식자재를 생산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은 과학적으로 영양성분을 분석해 치유·힐링 식단 개발하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 생생마을 대표자들은 "이번 협약이 지역 먹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식품연구원 박재호 헬스케어연구단장은 "전북도 이전 기관으로써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발전적 사업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호일 도 농촌활력과장은 "생생마을의 뛰어난 먹거리와 한국식품연구원 과학적 협력을 통해 지역 건강 치유식단을 개발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코로나19 위기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

자가격리 시 대체인력 지원·24시간 활동급여 등 제공

전북도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 돌봄 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코로

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분산 조치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 급여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 학생에게는 특별돌봄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학생 특별돌봄지원은 장애학생들의 가정에서의 학습(온라인)을 보조

하는 서비스로 월 40시간(6개월) 제공한다.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기간은 접수일부러 연말까지 최대 6개월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로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산림소득 공모 국비 확보 총력

도, 산림청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5개 사업 적극 대응

전북도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시설 등 2개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2022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국비 239억원이 지원되고, 총사업비 규모만 565억원에 달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임산물 생산시설·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도모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 대외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확대는 물론 전문 임업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호두·대추 등 수신품류와 표고버섯 등 버섯류, 더덕·도라지 등 산나물류, 약용류 등 7개 분야 79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특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군과 함께 공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

난 4월 시·군 산림 소득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3일간의 공모사업 설명회도 마쳤다.

2022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전문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 및 도·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와 현지 확인,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중앙부처의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신청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면서 모든 역할을 집중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21년도 공모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 등 3개 부문에 6개 사업이 선정되며,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2020년도 공모 선정액 10억원에 비해 3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4개소로 확대 운영

전북도는 수상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웰빙 및 힐링 욕구 증대 등에 따른 관광 활동 수요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 2개소에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4개소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1억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군산과 김제 등 4개 시·군에서 카누와 카약, 요트 등 다채로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